

지 금 이

3



0

퍼



지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고
연말은 편하게 보내세요

연말에는
4차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내 바로가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KOROAD BIMONTHLY MAGAZINE

겨울 매

2025 7+8월호 VOL.488

2025 7+8월호
VOL.488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안심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도로 다시 보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열기가 실려 있고,

태양도 뜨겁게 내리쬡니다.

평년보다 번덕스러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일상의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며

저마다의 추억을 쌓아가는 여름.

그만큼 도로 위는 분주해지고,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곳곳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는
'안심'이 아닐까요?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서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 주의하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그리고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
기다려주는 작은 여유.

이런 배려의 순간들이 쌓여 도로는 점점 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누군가의 안심이 남도록.

오늘도 우리는 안전이라는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도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일상입니다.

신호등

포켓뉴스 안내
자주 헛갈리는 교통법규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오디오 E-BOOK
QR코드를 촬영하면 오디오북으로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권 제488호
발행일 2025년 7월 2일
등록일 1980년 8월 22일
창간일 1980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행인 김희중
편집인 엄관식
주소 26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전화 033-749-5085
제작·디자인 경성문화사
외부 감수 황준승



[특집] 도로 다시 보기: 안심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 06 **약속해요 안전운전**
당신 덕분에 모두가 안심하며 달립니다
- 10 **사고 보고서**
방심은 금물, 안심은 선물
- 12 **신호등 인사이트**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
- 16 **교통안전 퀴즈**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배 - 움 - 길

- 18 **슬기로운 운전 생활**
도로 위 생명을 지키는 목소리 tbn교통방송
- 20 **죄와 벌**
백색 실선 너머의 후회
- 24 **내 차 사용법**
여름철 자동차 관리법
- 26 **미래 도로 설명서**
디지털 트윈, 교통안전을 다시 쓰다
- 30 **호동이 안전툰**
4화 장마철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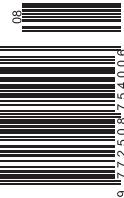
실 - 천 - 길

- 32 **팔도강산 한 바퀴**
역사를 따라 걷는 길, 충남 예산
- 38 **지금, 여기**
해바라기 군락지
- 40 **세계 돌보기**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 42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휴가철 대비 차량 점검
- 46 **시선 차이**
상향등에 대한 생각은?
- 48 **안전 수칙 365**
전동보장구 안전 수칙



나 - 님 - 길

- 50 **KOROAD, CO-ROAD**
교통약자와 함께 걷는 도로
- 54 **우리집 필라테스**
수건 하나로 완성하는 필라테스 동작 세 가지
- 56 **KOROAD 게시판**
- 58 **KOROAD 소식**
- 61 **정보보호 만화**
- 62 **교통안전 소식**
- 63 **호동이 색칠공부**
- 64 **독자마당**
- 66 **구독 안내**



9 172508 754006
ISSN 2508-7541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신호등」에 실린 자료는 사전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환경부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환경인증'을 받은 재생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지는 친환경 재생 펄프(DIP)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지를 사용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잉크를 임크로 인쇄했습니다.



FSC
www.fsc.org
FSC® C108818



친환경
한글부



30%
RECYCLED
MATERIAL



ECF
ELEMENTAL
CHLORINE FREE

당신 덕분에 모두가 안심하며 달립니다

전방 주시는 운전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오늘도 앞을 바라보며 운전하는 당신 덕분에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 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햇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는 금지, 졸음은 휴식

운전 중, 나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있을까?

당신의 선택은? 실제 운전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눈을 돌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입니다. 아래 상황에서 나의 선택을 확인해 보세요.

상황 1. 신호 대기 중, 휴대전화 알림이 올릴 때

- A. 휴대전화는 보지 않고 계속 전방을 주시한다. ☐
- B. 자연스럽게 알림을 확인하고 답장까지 한다. ☐

상황 2. 내비게이션 경로가 바뀌었을 때

- A. 음성 안내만 듣고, 주행 중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다. ☐
- B. 지도 화면을 보려고 시선을 자주 옮긴다. ☐

상황 3. 뒷좌석에서 아이가 말을 걸거나 장난을 칠 때

- A. 당황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한 채로 아이를 달랜다. ☐
- B. 아이를 보기 위해 자주 뒤를 돌아본다. ☐

상황 4. 갑자기 차 안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

- A.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수습한다. ☐
- B. 달리는 중에도 허리를 숙여 집는다. ☐

상황 5. 운전 중 전화가 올 때

- A. 핸드프리로 짧게 응답하거나, 무음으로 넘긴다. ☐
- B.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한다. ☐

상황 6. 차창 밖 풍경이 멋질 때

- A. 나중을 기약한다. ☐
- B.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

상황 7. 동승자가 동영상을 보여줄 때

- A.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볼게"라고 말한다. ☐
- B. 호기심에 슬쩍 본다. ☐

상황 8. 반려동물이 동승한 경우

- A. 이동장이나 안전띠를 활용해 안전하게 조치한다. ☐
- B. 무릎 위나 옆좌석에 자유롭게 두고 수시로 쳐다본다. ☐

A를 몇 개 선택했나요?

7~8개: 전방 주시 모범 운전자

당신은 운전 중 시선을 잘 통제하고 있어요. 순간의 방심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안전한 운전자입니다. 지금처럼 만 유지하세요!

4~6개: 전방 주시 태만 주의

기본적인 주의는 있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습관적인 시선 이탈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승자 대응'은 위험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0~3개: 전방 주시 태만 위험

운전 중 주의가 자주 분산되고 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시선이 자주 흐트러지고 있네요.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방 주시를 위한 안전 습관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 조작과 블루투스 연결을 마친다.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는다.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 보조기능을 과신하지 않는다.



동승자와 대화 중에도 시선은 항상 전방을 주시한다.

안전운전을 위한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시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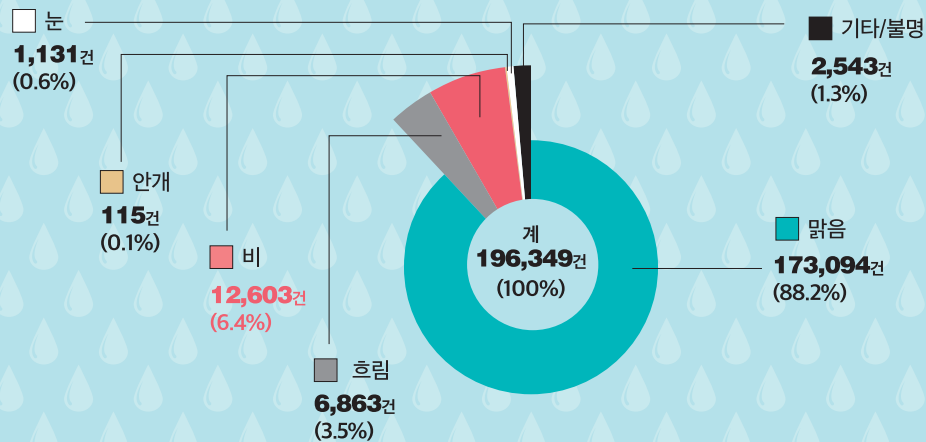
방심은 금물, 안심은 선물

잠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빗길, 렌터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며 울여름을 안심으로 채워보자.

글 편집실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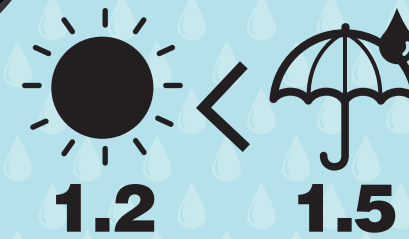
비 내리는 여름철 안전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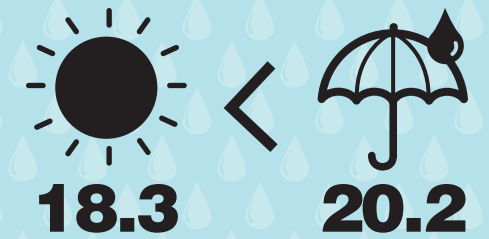
2024년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건수 및 구성비

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도 좁아진다. 2024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6.4%인 12,603건이 빗길에서 발생했다. 특히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빗길 사고, 더 많이 다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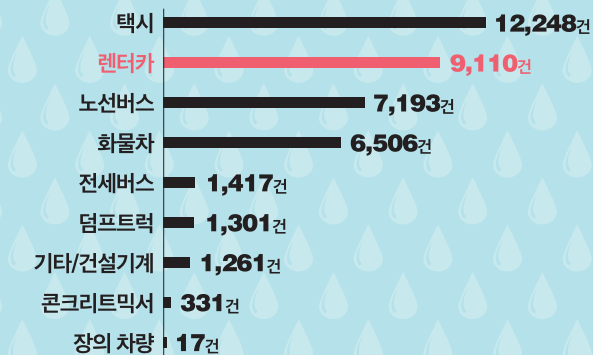
2024년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치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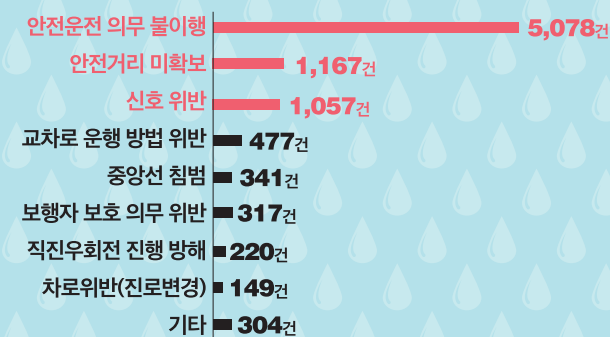
2024년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

안전운전 필수! 렌터카 사고 현황

2024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중 렌터카 관련 사고가 9,110건으로 나타나 택시 다음으로 많았다. 렌터카 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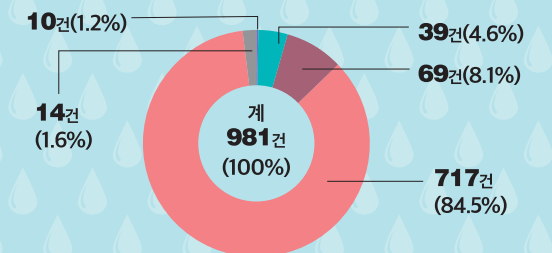
2024년 차량용도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현황



2024년 렌터카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원인

음주운전 사고 비율 높은 렌터카

2024년 음주운전 사고를 차량용도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용 차량 중 렌터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휴가철 렌터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다.



2024년 차량용도별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사고 현황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

- 철저한 차량 점검 후 출발**
 - 브레이크, 와이퍼, 전조등,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도 등 차량상태 점검
 - 비상삼각대, 야광봉 등 비상 물품 준비
- 아는 만큼 안전한 정보운전**
 - 목적지까지의 운행 노선 및 휴식지 등 운행계획 수립
 - 여행지 도로의 특성(기상, 사고위험지역 등) 등 교통정보 파악
- 나와 우리를 위한 안전운전 실천**
 - 장거리 운전 시 2시간마다 휴식(혈액순환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 필요)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어린이는 뒷좌석에 착석 (안전띠 착용여부 반드시 확인)
 - 음주운전 금지 및 전날 과음 시 오전 운전 피하기

모빌리티 전환이 본격화되며 차세대 교통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의 이동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어 교통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 국내 ITS(지능형 교통체계)보급과 교통문화 혁신에 기여해온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을 만나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송지유 사진 남윤중(studo51)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기술 너머의 교통문화 전환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



미래 교통의 핵심, 모빌리티 전환

자율주행과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은 교통 문화의 패러다임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드론택시가 실증 운항에 나서고 있는 지금, 교통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이동 방식을 바꾸는 ‘모빌리티 전환(Mobility Transition)’이 진행 중이다.

“모빌리티 전환의 중심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율화(AI 기반 자율주행), 전동화(전기차·UAM 등 친환경 교통수단), 그리고 공유화(공공교통과 차량 공유 서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 등)입니다. 우리의 교통관련 기술정책도 이 세가지 키워드를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한국 교통정책의 근간은 ‘형평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 교통기술의 발전은 소외 없는 보편적 이동권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영찬 원장은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대한



교통학회 회장 및 한국ITS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교통안전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수십 년간 현장과 정책을 넘나들며 실질적인 교통문화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우측 통행 전환’을 비롯해, 정부 교통 운영 선진화 사업으로 진행한 ‘직진 후 좌회전 방식의 신호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확대 등 안전한 교통문화 변화 시스템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 ITS 즉, 도로, 차량, 신호체계, 교통 관제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T-map, 버스 정보 시스템, 신호 시스템 등 교통과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 분야의 보급에 기여할 수 있었죠. 교통학자로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제도적 준비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을 비롯해 전동화, 공유화 또한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 기술로 급속히 진보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찬 원장은 이 기술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기술은 준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있어도 면허체계나 교통법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용화되기 어렵습니다. 배달 로봇,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죠. 정부나 한국도

로교통공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기반이 되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영찬 원장은 교통 정책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촉구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교통정책’도 중요한 축이다. 이미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교통DB센터’를 통해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개통 때 모바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을 예측하고 대비해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설문조사 등 전통적 방식보다 실시간 이동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기술 너머의 교통문화, 표지교차로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등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통안전의 근간은 결국 사람에게서 출발한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과거 연간 1만 명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간 2,500명 수준으로 4분의 1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간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¹⁾

1)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21명, 부상자 수 278,482명, 교통사고 건수 196,349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부상자 수 288,799명, 교통사고 건수 198,296건



이에 대해 김영찬 원장은 획기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교통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해법으로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지교차로’는 기술보다 문화에 방점을 둔 교통안전정책이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정지(Stop)나 양보(Yield) 표지를 설치해 차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 스스로 멈추거나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신호등만 지킬 것이 아니라, 표지판도 신호처럼 지켜야 합니다. 일본은 이면도로에 ‘토마레(정지)’ 표지를 전면 설치해 교통사고를 30% 줄였습니다. 우리도 운전자가 표지판을 신호등처럼 존중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에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표지교차로 운영 시범 사업에 대한 공조 체제를 제안했다. 한국형 표지교차로의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국가교통정책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국가교통정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종합교통물류기술 연구 강화와 국민교통안전 향상 및 교통문화 정착 중심의 연구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기술선도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교통빅데이터 활용과 선진교통정책 개발 등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자율주행 실증연구, 스마트시티 기반 교통정책, 교통안전 제도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통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 ①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 ③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체 중량이 35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④ 차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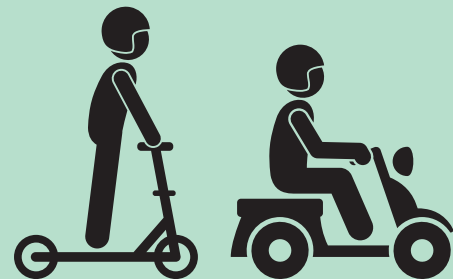
도움말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제19호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AS(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 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독자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Q2.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행위 2가지는?

- ① 피로한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안정을 취한 후 출발한다.
- ② 평소 즐겨보는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한다.
- ③ 주기적인 휴식과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 ④ 출발 전뿐만 아니라 휴식 중에도 목적지까지 경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운전한다.

도움말

사전에 주행계획을 세우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아닌 휴식 중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졸음운전을 이겨내기보다 주기적인 휴식과 환기를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Q3. 수막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막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본 타이어보다 폭이 넓은 타이어로 교환한다.
- ② 빗길보다 눈길에서 수막현상이 더 발생하므로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 ③ 트레드가 마모되면 접지력이 높아져 수막현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 ④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질수록 고속주행 시 수막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움말

광폭타이어와 공기압이 낮고 트레드(타이어 홈)가 마모되면 수막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새 타이어는 수막현상 발생이 줄어든다.



도로 위 생명을 지키는 목소리 tbn교통방송

전국에서 실시간 교통정보는 물론,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전해온 tbn교통방송이 공익 방송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기획 프로그램은 각종 방송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tbn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공공 저널리즘'의 모범임을 입증해왔다. 지금, 사람과 도로를 잇는 그 목소리의 기록을 돌아본다.

글 편집실

전국 운전자의 길잡이, tbn교통방송

tbn교통방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 전문 방송이다. 1997년 12월, 광주교통방송 개국을 시작으로 하나씩 지역을 넓혀가며 전국으로 확대됐고, 2024년 7월 31일 공단 명칭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면서 방송국 이름도 'tbn교통방송'으로 새 단장했다.

방송 설립의 목적은 도로교통법 제123조에 따라, 도로 위의 안전을 알리고 교통정보를 모아 전함으로써 사고를 줄이고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다.

지금은 전국 12개 FM 교통방송국과 17개 중계소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교통 상황에 맞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2025년 7월 8일엔 tbn충남 방송이 새롭게 문을 열어 충남 지역 교통·재난 정보를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tbn교통방송은 2020년부터 24시간 종일 방송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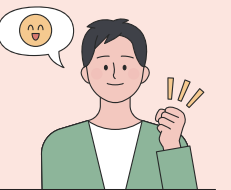
※ tbn교통방송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tbn교통방송'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tbn 수상작 시리즈

tbn교통방송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 중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인정을 받은 수상작은 tbn교통방송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산다>

한국PD대상(작품상), 제114회 인권보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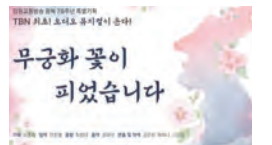
- 오송 공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 1년 4개월간 피해자 및 유가족의 깊은 심리적 상처와 사회적 회복 과정을 진솔하게 담은 르포 보고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국방송대상(지역프로그램 대상)

- 강원지역 무궁화 보급운동과 남궁역 선생 이야기를 오디오 뮤지컬로 재구성해, 시각장애인도 상상의 공간에서 광복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창의적 라디오 작품



차별어의 발견

바른방송언어특별상, 양성평등미디어상

- 일상 속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어를 예리하게 포착해 그 뿌리와 사회적 영향, 대안적 언어 사용 방안을 진단하는 깊이 있는 언어 기획 프로그램



두 여인, 결코 지치지 않았던

한국PD대상(지역프로그램 대상)

- 독립운동가 김명시와 친일파 배정자의 상반된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 여성의 역사적 위치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지역 라디오 다큐멘터리



내 마음이 들리니

한국방송대상(사회공익 라디오 부문 작품상)

- 청각언어장애인과 관련된 이들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한 수어특집방송



tbn 통신원 참여 방법

tbn교통방송은 전국 6,000여 명의 교통통신원과 경찰청 등 교통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정보를 수집한다. 지역 주민들은 통신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 상황을 제보함으로써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 통신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tbn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스캔하여
통신원 신청하기

백색 실선 너머의 후회

만약 운전 중 나의 과실로 다른 자동차가 사고를 낸다면?
내 차와 충돌이 없었으니 그냥 무시하고 가도 괜찮은 걸까?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백색 실선을 넘는 바람에 뒤차 사고를
유발한 A씨의 실제 사연을 통해 알아보자.

글·그림 차은서 감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지키는 자 vs 지키지 않은 자

뜨거운 태양이 붉은빛을 길게 늘어뜨리며 넘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할텐데...”

지민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조바심이 났다. 어느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지만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던 탓이다.

“내일 먹을 음식도 미리 만들어 두고... 아, 맞다. 오늘은 배수구도 청소해야지...”

지민의 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온통 회사 일을 핑계로 미뤄 둔 집안일 생각 뿐이었다.

“앗! 지하도로 타야 하는데!”

그 순간 차로를 잘못 든 지민은 급하게 운전대를 돌려 지하도로로 이어진 차로로 향했다.

이미 지하도로 입구와 가까워져 차선은 실선이었지만 지민은 개의치 않았다.

‘끼이이익— 쿵!’

그때, 뒤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뒤따라오던 운전자, 하준이었다. 갑자기 끼어든 지민의 차에 놀라 운전대를 꺾다가 그대로 다른 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준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지민의 차를 향해 달려갔다.

“저기요!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그쪽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저랑 부딪치셨어요? 앞을 잘 보셨어야죠!”

괜한 항의를 한다고 생각한 지민은,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

분노한 하준은 휴대전화를 들어 떨어져 가는 지민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했다. 사고를 수습하면서도 하준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욱 그랬다.

피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

‘따르릉—’

며칠 후, 평범했던 지민의 일상을 깨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번 백색실선을 넘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안내 전화였다. 지민은 당황했다.

“제가 부딪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사고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전방 주시를 안 한 거겠죠!”

“자세한 내용은 서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간 지민은 더 황당한 이야길 듣게 됐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임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것이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 여부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거라는 안내도 함께.

“이런 법이 어딴어요? 사고는 뒤택이 났는데 왜 제가 가해자인 거죠?”

“백색실선에서는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거 모르세요? 본인 과실로 뒤택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랑 진술도 전부 확인했어요. 증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세요.”

결국 재판이 열렸다. 지민은 조마조마하게 판결 선고를 청취했다.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내가 유죄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왜 과실이 있다는 거야? 항소하겠어!”

법정 앞에 선 양심

드디어 항소심이 열리는 날, 지민은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각오로 법정에 들어섰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법정에 섰다. “피고인?”

판사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지민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지민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그날 사고가 난 건 맞지만, 전 그 차량 부딪치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다친 줄도 몰랐어요. 백색실선이라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고요. 그냥... 저는 제 갈 길 간 것뿐인데, 1심 판단이 저로선 너무 억울해요. 이해도 안 돼요.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는 재판 기록을 한 장 넘기고 말을 이었다.

“이 사고는, 피고인이 백색실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실선은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안전 표지’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뒤택이 차량이 피하려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민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판사는 시선을 잠시 내려 판결문을 꺼내들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지민의 머릿속에 또렷이 박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지민은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던 그날, 사고의 책임은 결국 ‘지키지 않은 자’의 몫이었다.



위 사건은 백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A씨가 그 사고로 사람들이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노39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여름철 자동차 관리법

불볕더위 때문에 안팎으로 뜨거워지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

글 김태영(자동차 저널리스트)

여름철에는 자동차의 여러 부분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동차를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1 실내 온도 관리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자동차를 세워뒀다면 순식간에 실내 온도가 최대 90도까지 상승한다. 직사광선이 유리를 통해 실내로 들어온 후 열기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실내에 있던 탄산음료나 보조 배터리, 라이터 같은 제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기적으로 이런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자동차 실내의 디스플레이나 오디오 같은 고급 전자 장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름철에 차를 주차할 때는 서늘한 그늘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서는 창문을 1~2cm 열어두어서 열기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만약 장시간 직사광선 아래 차를 주차해야 한다면 앞, 뒷유리를 햇빛 가리개로 가려서 직사광선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다.

#2 효과적인 에어컨 사용

대부분의 운전자가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뜨겁게 달

궤진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엔진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곧바로 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에너지 낭비와 더불어 실제로도 실내 온도가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다. 뜨거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석 뒤쪽 2열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문을 강하게 몇 번 닫는 것이 좋다. 이때 문이 닫힐 때마다 외부 공기가 실내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실내에 있던 뜨거운 공기를 창문으로 빠르게 배출시킨다. 시동을 건 후에는 2~3분간 미지근한 온도의 송풍 모드로 공기를 순환시킨다. 에어컨 팬이 냉매 기구를 통과해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고 3~5분이 지나면 AC(에어 컨디셔닝) 기능을 켜고, 온도를 내린다. 에어컨은 처음에는 강하게 틀어서 차가운 공기를 빠르게 실내로 유입시키고, 이후 천천히 바람 세기와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3 뒷좌석 점검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잠시 용무를 해결할 계획으로 승객이나 반려견을 차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한 여름에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문을 잠그고 차에 아이나 반려견을 두는 건 매우 위험하다. 엔진 시동을 막 끈 자동차에는 엔진과 하체의 각종 열기가 실내로 전달돼 순식간에 실내 온도

가 뜨겁게 상승한다. 따라서 단 몇 분 만에 체온에 치명적인 수준까지 실내 온도가 오르고, 호흡이 어려울 수 있다. 승객을 위해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에어컨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등 간단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본적인 위험 요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름철에 차를 주차할 때는 승객이나 반려견 모두 차에서 내리거나 보호자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

#4 터보 엔진의 열 관리

최근 자동차 업계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보 엔진'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터보'란 과급기(터보차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엔진에 공기를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 기구를 말한다. 적은 연료가 많은 공기와 연소하면서 높은 출력을 내도록 하는 장치다. 반면 터보는 고회전 터빈과 베어링이 핵심이고, 이들 모두가 예열과 후열에 따라서 내구성에 차이가 난다. 따라서 터보 엔진의 경우 한 여름철에는 시동 후 30초, 주행 후 약 1~2분간 공회전으로 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기준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영상 25도 이상~30도 미만의 경우 5분 이내까지 가능, 영상 30도 이상에서는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지자체마다 다름).

#5 타이어 공기압 중간 점검

여름철 장시간 주행 중에는 타이어가 열을 받아 내부 공기압이 적정 압력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때 타이어 내부 구조가 파열되거나 타이어 표면 고무가 비정상적으로 마모될 수 있다. 보통 장거리 주행 전에 주차장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 여름에는 1시간 정도 주행 한 뒤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게 좋다. 주행 중 뜨거워진 압력을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추면 적절하다.

#6 장거리 주행과 휴식

여름엔 열기가 가장 심한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장거리 주행 중이라면 2~3시간에는 한 번씩 정차해서 30분 정도 엔진을 식혀주는 것이 좋다. 이때 계기판에서 냉각수 온도나 엔진 온도 게이지를 살피고 평소보다 온도가 높다면 엔진 커버(보닛)를 열어 열 배출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 또한 주행풍으로 엔진과 브레이크가 서서히 냉각될 수 있도록 과도한 가속이나 급제동은 피하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좋다.

1)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혼합 기체를 실린더 안으로 보내 압력을 높이는 엔진의 보조 장치.

교통안전의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트윈, 교통안전을 다시 쓰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실제와 똑같은 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도로교통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도로 위 디지털 트윈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교통 운영·관리, 자율주행 기술 검증, 운전면허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교통 혁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 편집실 김수, 박신행(서울시립대 교수)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연구>, 서울시 보도자료(2024.6.26.), 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

시뮬레이션으로 자율주행 시대 준비

도로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는 자율주행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 투입하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운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을 활용하면 사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은 다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교통 디지털 트윈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함께 도로



토막 상식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컴퓨터상에 동일하게 구현한 가상의 쌍둥이 기술이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차량, 신호 시스템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흐름 분석, 사고 예측,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를 주행할 때의 교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교통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교통> 2024년 10월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차량, 신호등, 표지판, 가로수 등 도로교통의 실제 요소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수집한 방대한 자료(빅데이터)를 연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고도화하는 중이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자율주행 실험 도시로 선정된 화성시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 교통관리 체계 구현

지금은 스마트 도시의 핵심 요소가 된 지능형 교통 체계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발표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에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교통관리 체계를 구

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교통 환경에 맞춰 도로·교통·주행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기준점과 연결망(노드·링크)을 개선한다. 둘째, 정밀 도로지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갱신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혼재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교통예측 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디지털 트윈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이를 운영할 교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다양한 도로 체계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상 공간 기반 기술이다 보니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초실감형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도로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자율주행 차

량을 운행하거나, 도심 항공 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착륙 지점과 항로를 설계하고, 실시간 교통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해 도시를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운전면허도 디지털 트윈으로 준비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공단은 2024년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 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앞서 도로교통법 관점에서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기초 연구 자료다. 공단은 일반 운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의 변경 방안, 자율주행차 시스템의 안전능력평가 필요성,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운전면허제



도 활용 방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 기능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을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평가 설계해 운전면허시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자율주행 운전면허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트윈을 운전면허시험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2022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최한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통해 실증된 바 있다. 공단은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를 열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환경 운전면허시험 시뮬레이션'과 '기능시험장 실도로 자율주행' 두 개 분야의 평가를 진행했다. 참가팀들은 실제 시험 항목과 동일한 미션을 가상의 환경에서 수행하며, 자율주행차가 실도로 상황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는지를 검증했다.

한편, 공단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한국ITS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율주행 시대의 안전교육 중요성을 다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운전자 교육 시나리오와 교육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자율주행, 사고 재현,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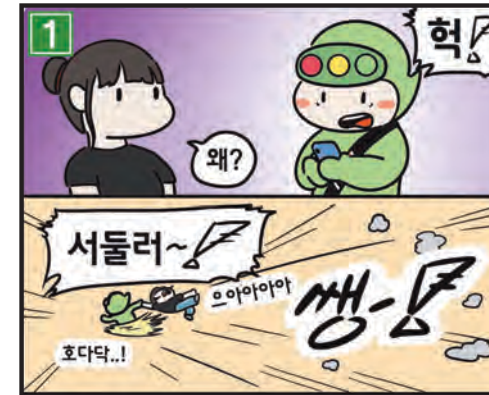


권상민 작가와 함께하는

안전툰

글·그림 권상민

장마철 주의보!



여름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하세요!

비오기 전 호동이가 했던 점검을 복습해볼까요?

고요한 걸음으로 만나는 충청의 시간

역사를

따라

걷는 길

충남 예산

한 걸음 한 걸음, 바람이 속삭이듯 들려오는 오래된 이야기. 충남 예산은 화려한 관광지가 없어도 마음이 오래 머무는 곳이다. 천년 고찰 수덕사의 깊은 역사, 조선 후기 예술과 사상을 꽃피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숨결, 그리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뜻까지. 이 모든 역사의 조각들이 고요히 흐르는 예산의 길을 따라가 본다.

글 편집실 사진 남윤중(studio51)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수덕사

고요한 산사의 아침은 온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자연의 숨결에 귀 기울이는 일로 시작된다. 수덕사는 백제의 온화한 미소와 깊은 지혜를 간직한 천년 고찰이다.

덕숭산 자락에 안긴 수덕사에 들어서면 천 년이 넘는 시간을 품은 고요가 먼저 맞이한다.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된 이 절은 고려 시대 나옹화상이 중창하면서 더 깊은 수행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풍상을 견딘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세워져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아한 구조에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은 이 건물은 국보로 지정돼 있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면 눈길이 절로 멈춘다. 기둥마다 배어 있는 시간의 주름, 처마 아래 낮게 깔린 그림자까지도 범상치 않다. 수덕사에는 한때 만공 스님과 일엽 스님, 이응로 화백이 머물렀던 흔적도 남아 있다. 이들은 예술과 사상의 경계를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했던 사람들이다. 수행과 예술이 겹쳐지는 그 자리에 서 있노라면, 침묵조차 묵직한 울림이 되어 되돌아온다.



웅장한 대웅전 뒤편으로 이어지는 고즈넉한 언덕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특별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화려한 장식이나 꾸밈은 없지만, 절제된 아름다움과 소박한 자연미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일상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온 마음도 이곳에서는 조금씩 느슨해지며 편안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충청도 특유의 여유로운 정서가 선물하는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

수덕사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 P 수덕사 주차장(유료)

조선 후기 예술과 사상의 정수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예산을 찾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장소가 있으니,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다. 조선 후기 금석학과 서예, 그리고 회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던 추사는 이 예산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며 학문의 기초를 다졌다. 고택의 대문을 들어서면 순간, 마치 오래된 수묵화 한 폭이 눈앞에 펼쳐지듯 담백하고도 깊이 있는 풍경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6칸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안방과 건넌방, 부엌이 연결된 구조다.

특히 사랑채에는 추사 선생의 유묵과 유품, 그가 남긴 학문과 예술의 발자취가 전사돼 있다.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마당 끝에서 ‘세한도’를 그리던 추사의 고독한 심경이 스며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고집과 절개가 이 집 구석구석에 머물고 있다.



고택의 뒤편으로 이어지는 고즈넉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곳에서 사색에 잠겨 곁엿을 옛 선비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주변의 아늑한 마을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 고요한 길은,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을 비우고 사색에 잠기기에 더없이 넉넉한 공간을 선사한다. 예산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처럼 차분하고 깊이 있는 풍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6
- P 공영주차장(무료)

청년의 순정이 남은 곳

윤봉길 의사 유적지

마지막 발걸음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자리한 윤봉길 의사 유적지로 향한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제의 고위 관료들을 향해 단독 의거를 일으킨 윤 의사의 삶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연한 맹세와 헌신으로 가득하다. 그의 고향 마을에 정성스럽게 조성된 이 유적지는 사적으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다. 생가인 광현당과 성장기 거처인 저한당, 그리고 충의사, 유물전시관, 부흥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윤 의사의 삶과 독립운동 정신

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전시관에는 윤 의사가 남긴 유품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월진회’ 깃발, 기사년일기, 농민독본 등 그의 생각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 중 일부는 보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낡은 흑백사진 속에서도 또렷한 눈빛으로 미래를 응시하던 윤봉길의 청년 시절을 마주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매한 윤봉길 평화체험공원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따스한 햇살 아래



윤봉길 의사 유적지(충의사)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 ▲ 하절기(3월~10월) 9:00~18:00
동절기(11월~2월) 9:00~17:00
- P 충의사 주차장(무료)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이 싱그러운 생기를 더한다. ‘나의 죽음이 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스물다섯 청년의 순수하고도 강인했던 애국의 바람은, 오늘날까지도 이 고장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변함없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이영득 예산지회장이 추천하는 기사식당



고향기사식당
진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가 어우러진 돼지찌개가 일품인 기사식당. 청국장, 제육볶음, 오징어찌개 등 모든 메뉴가 인기다. 이른 아침부터 든든한 식사가 가능하다.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 1602 ☎ 041-334-8200



옛날순대국밥
고소하고 깊은 맛의 순대국밥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스타일 식당. 택시 기사님들이 자주 방문할 만큼 손꼽히는 맛집이다.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 ☎ 041-331-4999



❶ 파주 법원읍 해바라기 밭

파주 법원읍은 여름철이면 넓은 해바라기 밭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매년 6월경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지만 축제기간이 아니라도 여름 내내 만개한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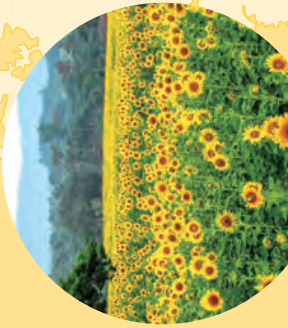
📍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 770번길



❷ 수원 탑동시민농장

탑동시민농장에 해바라기가 절정을 앞두고 있다. 4만 6635㎡ 규모의 경관 단지와 1,500세대 체험 텃밭이 어우러진 이곳은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해바라기가 활짝 피는 8월, 여름의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한 번 둘러보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55



❹ 고창 학원농장 해바라기 밭

고창에서 가장 유명한 농촌형 군락지, 약 15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줄지어 피며, SNS 인증 명소로 알려져 있다.

📍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길 158-6



❶



❶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고려시대 삼별초의 향몽 유적지로,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해바라기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며 감상하기 좋다. 입장료와 주차비가 무료인 것도 매력.

📍 제주 제주시 애월읍 향파두리로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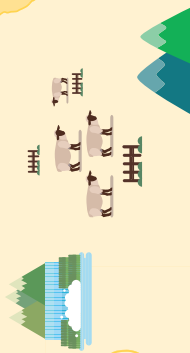


글 편집실
사진 출처. 함안군청, 경주시청, 경상남도청,
제주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한국관광공사

햇살을 담은 꽃길에서 여름을 건다 해바라기 군락지

해바라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전국 곳곳에서 노란 물결이 넘실거린다. 도시를 벗어나 초록 들판 위로 활짝 핀 해바라기 군락지를 찾는다면, 그 여름은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다. 태백에서 제주까지, 지금 가장 아름다운 해바라기 군락지를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출처. 함안군청, 경주시청, 경상남도청,
제주향파두리 향몽 유적지, 한국관광공사



❶



❷



❸ 태백 구외우 해바라기 마을

해발 850m 고지대에 조성된 고랭지 해바라기 밭으로, 약 3만 평 규모. 태백 산맥 능선을 따라 펼쳐진 노란 해바라기 풍경은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청량함을 준다.

📍 강원 태백시 구와우길 30



❸



❹ 함안 강주해바라기 마을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조성한 약 3만7천㎡ 규모의 해바라기 단지.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과 변화가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로 898-17



❺ 경주 남천 해바라기 군락지

경주시 남천 강변을 따라 조성된 해바라기 군락지. 교천교 인근에서 시작해 약 10km에 이르는 강줄기를 따라 노란 해바라기 물결이 일렁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경북 경주시 남천동 일대



지금, 여기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

산과 가파른 경사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하늘길'은 더 이상 관광용이 아니다. 세계 곳곳의 산악 도시에서는 케이블카를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로를 뚫기 어려운 곳일수록 하늘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는 현실적이고 이색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글 편집실 출처 스카이몬테비앙코(montebianco.com), 스위스 관광공사(myswitzerland.com), 스리람스 IAS 아카데미(sriramsias.com), ZTrip 투어 공식 블로그(tour.ztrip.vn), 초빌퍼호른 케이블카(zwoelferhorn.at)



스위스

발레주 케이블카

알프스산맥에 자리한 스위스는 케이블카를 실생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발레(Valais)주에서는 외딴 산악 마을과 도시를 잇는 케이블카 노선이 마치 버스처럼 운영된다. 주민들은 이를 이용해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기도 한다.



이탈리아

스카이웨이 몬테 비앙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산맥에 위치한 '스카이웨이 몬테 비앙코(Skyway Monte Bianco)'는 고도 2,166m를 오르는 케이블카로 유명하다. 탑승객은 공중에서 몽블랑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광뿐 아니라 연구자와 지역 주민의 이동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눈 덮인 고산지대를 잇는 대표적 공중 교통망이다.



오스트리아

초빌퍼호른 케이블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 장크트길겐에 위치한 초빌퍼호른 케이블카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형 케이블카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약 930,9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2024년 6월부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배터리 저장 장치를 통해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자체 생산해 친환경 케이블카의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다.



파르바트말라 프로젝트

인도는 '파르바트말라(Parvatmala)' 프로젝트를 통해 케이블카를 전국 교통망에 포함하고 있다. 히말라야 등 고지대 지역에 2030년까지 약 200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교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인도



바나 힐 케이블카

다낭 근처 바나 힐(Ba Na Hills)에는 세계 최장 단일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다. 총길이 약 5.8km, 해발 1,487m까지 15분간 운행하며, 대형 테마파크와 산악 관광지를 연결한다. 이 케이블카는 관광뿐 아니라 직원 수송과 운영 지원까지 담당하며 지역 교통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도 여름나기 준비!

휴가철 대비 차량 점검

휴가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다. 후회 없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는 필수.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글 편집실

← KOROAD

Q ≡

장거리 운전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브레이크 점검

- 브레이크 소음, 페달 감도 등을 점검해 장거리 운행을 준비한다.
- ‘끼익’ 소리나 밀리는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점검

- 타이어가 닳거나 공기압이 낮으면 제동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마모 정도와 공기압을 확인하자.



냉각수·엔진오일 점검

-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는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엔진 오일도 교체 시기를 놓치지 말자.



배터리 점검

-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전력소비 증가로 배터리 방전이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저하됐다면 교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에어컨 및 냉각 시스템

- 에어컨 냉매가 부족하면 냉각 능력이 떨어져 운전 중 불편할 수 있다. 또한 필터가 먼지로 막히면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운전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내부 관리

- 제습제를 비치하면 차량 내부 습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운전 중에는 내부 순환 모드를 해제해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습기를 줄일 수 있다.

토막 상식

차량 긴급 물품으로 사고 대비!

여름철엔 빗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 또한 장거리 운전이 잦은 휴가철 특성상 고속도로 사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 긴급물품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차량 긴급 키트는 탈출 망치, 안전 삼각대, 경광등, 담요, 차량용 소화기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된다. 올 여름 차량 긴급 키트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실 - 천 - 길

42

← KOROAD

Q ≡

자동차 휴가 준비? 퀴즈로 알아 봅시다

자동차 점검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 타이어 공기압이 낮거나 마모된 타이어는 력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중요하므로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자.
-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이 나거나 밀리는 느낌이 있다면 바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브레이크는 사고와 직결되는 부위이므로 작은 이상도 방치해선 안 된다.
- 여름철 장거리 운전 시, 엔진이 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점검한다. 냉각수 부족은 엔진 손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출발 전 확인이 필수다.
- 성능 저하가 의심되는 는 장거리 운행 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예고 없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자.
- 장마철 소나기를 대비해 와이퍼와 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시야 확보는 안전 운전의 기본이므로 와이퍼 상태도 함께 점검하자.
- 실내 냉방을 위한 에어컨 점검도 잊지 말자. 필터가 막히면 냉방 효과가 떨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여름 전 교체가 필요하다.

43

KOROAD BIMONTHLY MAGAZINE

- 7 오일은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게 해주는 필수 요소이므로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래되면 연비 저하와 엔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8 평소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차량에 삼각대, 손전등,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휴가철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 9 타이어의 선이 보이면 교체 시기가 지났다는 신호이므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특히 여름엔 수막현상으로 인해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지므로 타이어 점검은 필수다.
- 10 차량을 장시간 운전할 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며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한다. 졸리지 않더라도 장시간 운전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쉬었다 가는 것이 좋다.

정답

이름 ⑩ 성

① 체육 ② 소문 ③ 괴물 ④ 배터리 ⑤ 양서류 ⑥ 필터 ⑦ 엔진 ⑧ 구분야 ⑨

토막
상식

에어컨 냄새 이렇게 잡아요!

무더운 여름, 운전 중 에어컨은 필수다. 하지만 시원함도 잠시, 귀찮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면 또 다른 고생이 시작된다. 여름철 에어컨 냄새는 주로 내부 습기로 인한 곰팡이 번식이 원인이다. 이를 막으려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5~10분 전 공조기의 순환 버튼을 누른 뒤 송풍 모드로 전환해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안전한 휴가철을 완성할 안전 수칙

출발 전	운전 중	도착 후
 • 운행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 • 안전을 위해 목적지까지 동선을 미리 확인한다. • 장거리 운전의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 정보를 파악한다. • 기상상태, 사고위험지역 등 교통정보를 파악한다.	 •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한다. • 장거리 운전 시 2시간마다 휴식한다. •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 • 음주운전 금물은 물론,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 전날 음주 시 오전 운전은 자제한다.	 •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특히 보행자를 주의한다. • 차를 세울 때는 주정차 가능 지역인지 확인한다.

—< 이 부분을 촬영해 주세요 >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름:

획득 점수:

점

느낀 점:

한 줄 다짐: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을 스스로 풀어보고, 45쪽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상향등에 대한 생각은?

어두운 밤, 도로 위 상향등을 켜까 말까. 상향등은 시야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등불일 수 있지만 때론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도로 위에서 마주친 두 운전자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향등 사용 예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

글 편집실

운전자 V S 운전자

“

밤길에 시야 확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차나 앞서가는 차가 있을 때는 잠시 상향등을 꺼 상대의 시야도 배려해 주세요

”

운전자 A 씨

제가 상향등을 안 켜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요.
내 안전은 누가 챙겨주나요?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이나 어두운 외곽도로에선 상향등 없이는 앞이 거의 안 보여서 불가피해요.



운전자 B 씨

안전이 중요하긴 한데,
서로 눈이 부시지 않게 조금씩 양보하는 게 도로 예의 아닐까요?

상향등 빛이 너무 강해서 마주 오는 사람 눈을 찡그리게 해요. 눈이 부셔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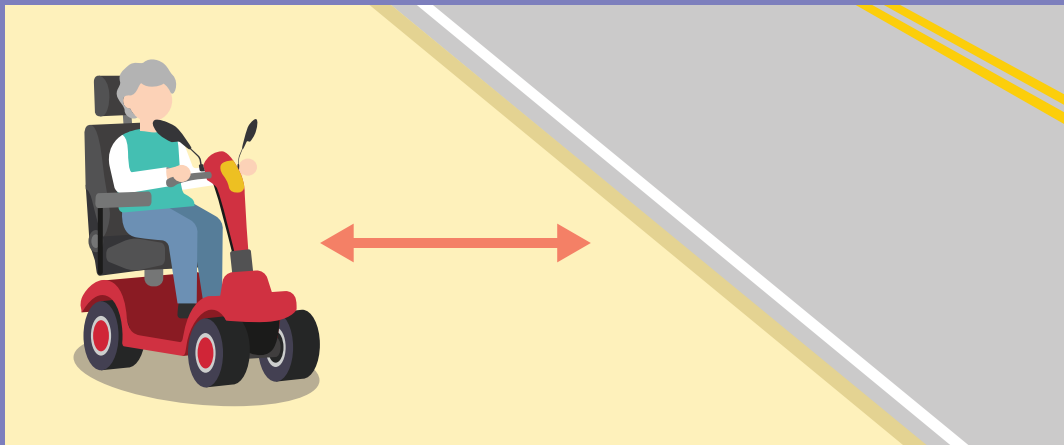


전동보장구 안전 수칙

출처: 건강보험공단

보도가 있는 곳

전동 휠체어 등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이동해야 하며,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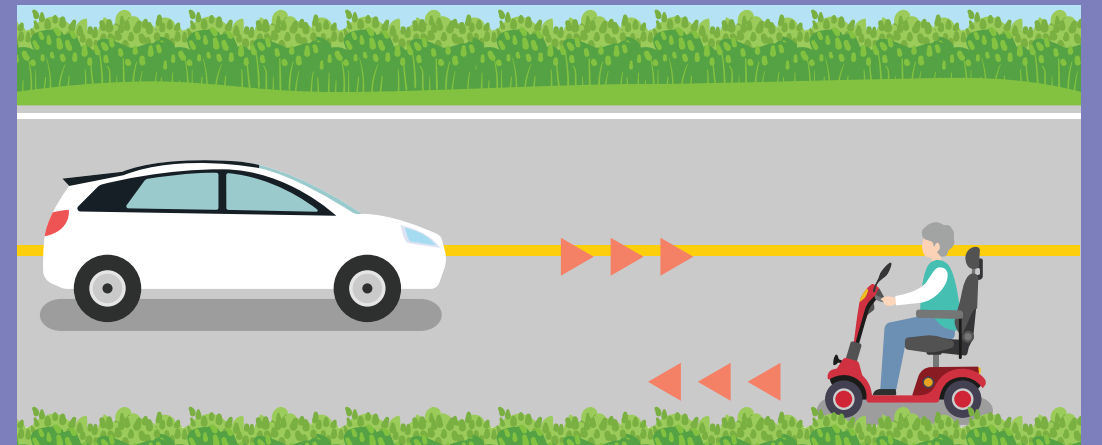
보도에서는 가급적 차도와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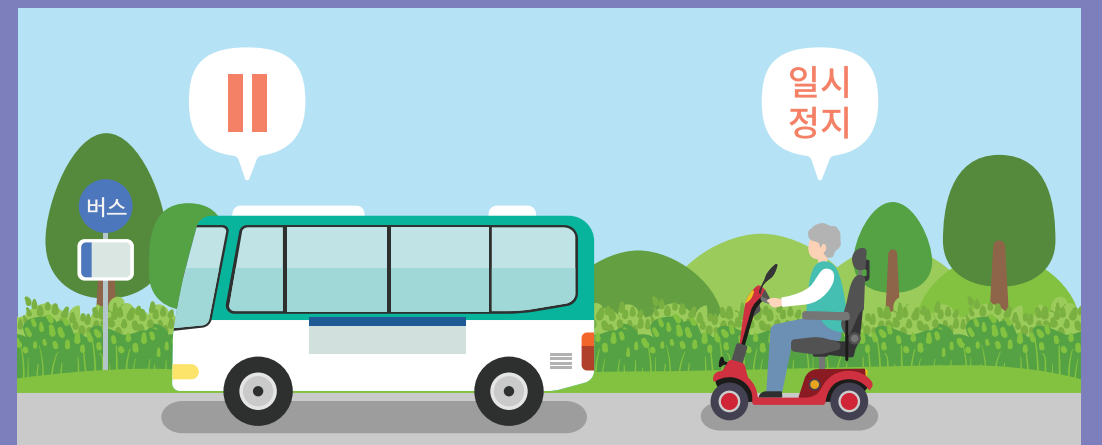
주변 보행자들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세요.

보도가 없는 곳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단, 일방 통행로에서는 마주보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로 통행할 때는 자전거, 오토바이 통행에 주의하며 길 가장자리로 서행하세요.



버스나 택시가 정차하면 일시정지 후 차가 출발한 뒤에 이동하세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와 함께 걷는 도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에게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싸워야 하는 현실일 수도 있다. 도로 위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는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글 편집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시청, 강북구청, 옥천군청, 함안군청, 부천시청,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울진군청, 성주군청

안전한 이동을 위한 배려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자동차에 올라 안전띠를 매는 일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임산부에게는 예외다. 복부를 직접 압박하는 일반 안전띠는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임산부는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차를 타는 것은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전용 안전띠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올해 1월부터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전용 안전띠를 6개월 간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충북 옥천군, 경남 함안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찍이 동일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복부는 물론 어깨까지 안정적으로 감싸는 전용 안전띠는 몸을 보호하면서도 불편함은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택시 지원도 있다. 부천시시는 2023년 '맘편한택시'를 도입해 임산부가 병원 방문 시 최대 13,000원의 택시비를 지원한다. 월 4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목적지도 산부인과부터 소아청소년과, 보건소까지 다양하다. 시에서는 기본 요금 초과액을





부담한다. 용인시는 2025년 3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용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 200대를 투입해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어르신에게

‘길’을 만든다

생활밀착형 이동 복지 실현

농어촌 지역에선 ‘기다림’이 이동의 또 다른 이름이다.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하거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힘겹게 걸어야 하는 일은 적지 않은 사례다.

경북 울진군은 올해부터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7곳에 ‘행복택시’를 시범 도입했다. 필요할 때 전용 택시를 호출하면 되고, 시내버스 기본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운행은 주 3일, 하루 왕복 2회까지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3월부터



문턱은 낮추고

이동성은 높인

장애인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화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상교통 시대의 문을 열기도 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저상버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자동 경사판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어도, 승하차 도중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 성주군은 설 명절이나 장날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기간에 ‘승하차 도우미’를 배치해 버스 승차를 돕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2~3인이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은 높은 상태의 와상 장애인도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기준을 손질했다. 그동안 민간 구급차 이용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와상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도 개선됐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를 저상버스 출입구 높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석 높이 규정이 ‘15cm 이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15~25cm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탑승 시 기울어지는 불편은 줄어들고 저상버스 승강판만 내리면 불편함 없이 승하차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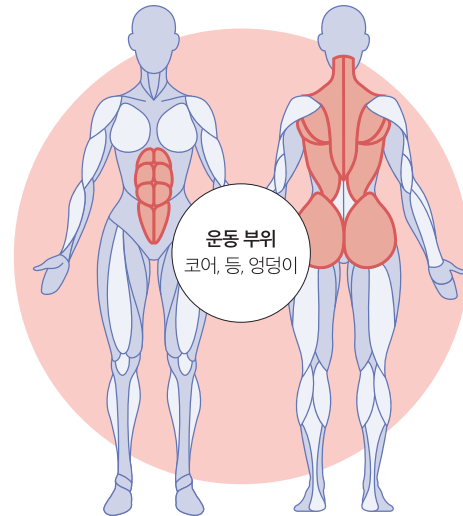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법정 대수의 150% 수준까지 확대 도입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에 따라 단축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 3월 기준 평균 대기 시간은 약 32분까지 줄었다. 또한 서울시는 유희 법인 택시의 휠체어 대응 대형 차량도 활용해 서비스 제공 규모를 늘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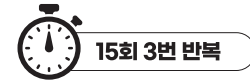
수건 하나로 완성하는 필라테스 동작 세 가지

가볍지만 운동 효과는 확실한 수건 필라테스! 미끄러지는 특성을 활용하면 코어, 등, 엉덩이까지 다양한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 수건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니, 집에서도 간편하게 따라 해보자.

강사: 한진영 사진: 남윤중



두 번째 동작 더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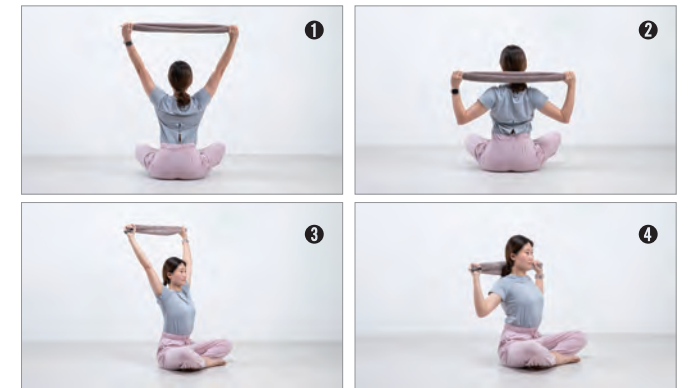
- 팔을 올릴 때 가능하면 귀보다 뒤쪽으로 뻗어주세요.
- 팔을 내릴 때 날개뼈 사이를 모아 엉덩이 쪽으로 낮춘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때 목이 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많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으니, 어깨가 앞으로 동그랗게 말리면서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① 준비 자세

-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척추를 위로 곧게 편다.
- 어깨너비보다 넓게 두 손으로 수건을 잡아 팽팽하게 만든다.

② 동작 따라 하기

- 수건을 잡은 채로 '만세' 한다.
- 수건을 좌우로 가볍게 벌리는 듯한 힘을 유지하며 팔꿈치를 아래로 접어 내린다.



첫 번째 동작 플랭크 돌핀



-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계속 힘을 주세요.
- 엉덩이를 올릴 때, 허벅지와 발끝까지 힘을 줘서 무릎이 굽혀지지 않고 뒤꿈치가 아래로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세요.
- 두 어깨와 팔에도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 목과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① 준비 자세

- 어깨 아래 팔꿈치를 내리고 골반 아래 무릎을 내려놓는다.
- 팔꿈치 사이는 어깨너비, 무릎 사이는 골반 너비로 벌린다.
- 수건은 발아래에 깔고 발은 까치발을 만든다.

② 동작 따라 하기

- 발가락으로 바닥을 쏠며 엉덩이를 낮추고 무릎을 펴 플랭크 자세를 만든다.
- 수건을 몸통 쪽으로 가져오면서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 올린다.
- 다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온다.



세 번째 동작 힌지 싱글 레그 슬라이드



- 다리를 옆으로 뻗을 때 골반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제자리로 돌아올 때도 까치발을 유지하고 무게 중심이 이동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 옆으로 밀던 발을 뒤로 뻗는 동작으로 변형하면 다른 자극을 느낄 수 있으니 시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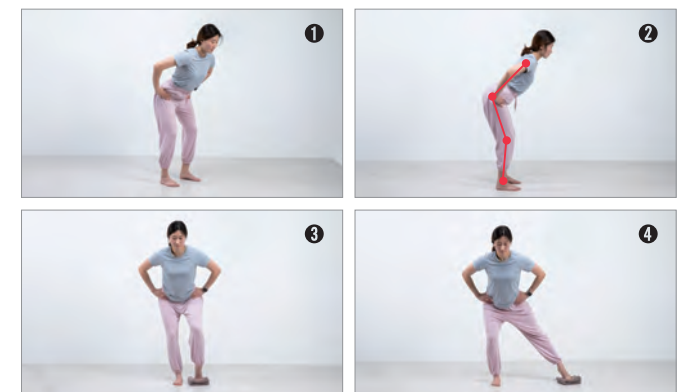
① 준비 자세

- 한쪽 다리 발바닥에 수건을 깔고 척추가 길게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 엉덩이를 뒤로 뻗는다.

- 골반이 말려 곡선이 되지 않도록 등 허리를 편 상태를 유지하고 엉덩이가 아래로 낮아지지 않도록 천장으로 끌어 올린다.(뒤쪽 허벅지가 당기는 느낌을 유지)

② 동작 따라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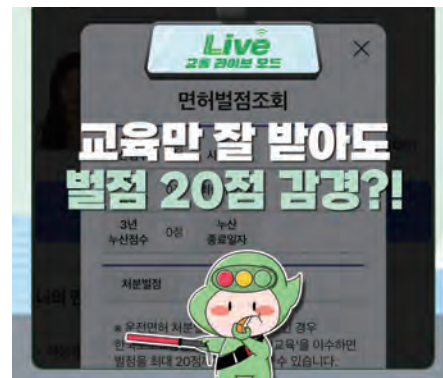
- 수건이 깔려 있지 않은 다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건이 있는 발은 까치발을 만든다.
- 수건이 있는 발은 무릎을 펴면서 옆으로 길게 뻗어낸다.
-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새로워진 자동차 번호판

올해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달라졌습니다.



벌점이 쌓인 당신에게!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로 쌓인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수칙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확인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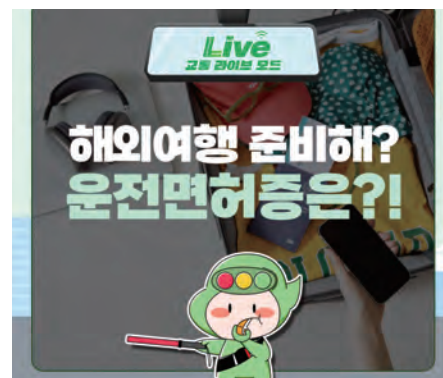
아직도 운전 중 흡연하세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운전 중 흡연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령운전자 표지 효과는?

붙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아시나요?



해외여행 가세요? 국제운전면허증 챙기세요!

외국에서 운전할 상황을 대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요?



불법 차박은 NO!

낭만을 지키는 자동차 캠핑 매너 반드시 지켜 주세요.



장애인 안내견의 모든 것

장애인 안내견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1

미래 교통안전을 향한 새로운 도약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착공식 개최!

-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자율주행차 평가·검증단지 구축



미래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연구와 개발에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가 만들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6월 10일(화)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에서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상범 국회의원, 김명기 횡성군수,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도·군의원과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환영사 및 축사, 착공 행사, 미래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자율주행 평가·검

증단지'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기반의 자율주행차 안전운전 능력 평가'에 핵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교통 핵심수단인 자율주행차의 교통안전 평가와 연구개발을 위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한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 평가·검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중심의 미래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미래 교통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

어린이의 목소리로 교통안전을 노래해요 ‘제3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

-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팀 대상 수상, ‘안전한 교통문화 지킴이’에 대한 무대 선보여...



어린이의 목소리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노래하는 '제3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에서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팀이 대상을 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3회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 본선을 5월 28일(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장에서 개최했다. 공단이 주최하고 교육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예선 심사를 거쳐 총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본선 참가팀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뮤지컬 창작곡 또는 자유 개사곡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완성도, 적절성, 적합성, 표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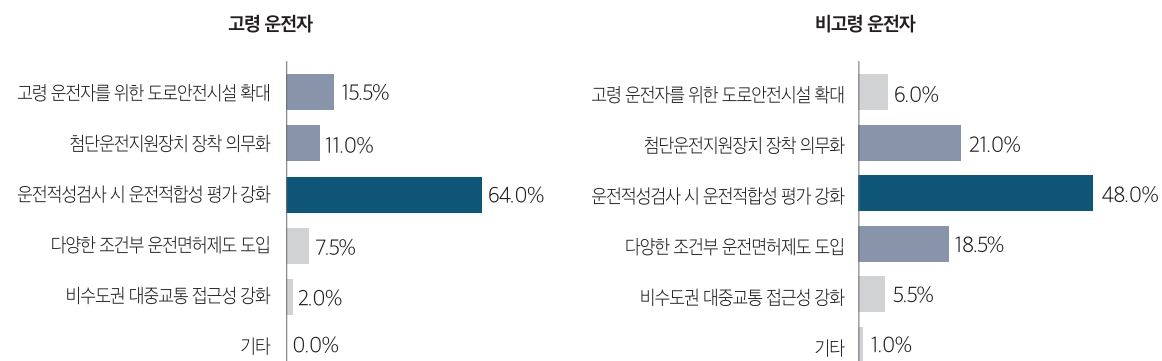
대중성, 참여자 간 호흡 등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대상(교육부장관상)은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최우수상(경찰청장상)은 '하늘나리'가 수상했다.

또 △우수상(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은 '편쌍', '동해북평초' △장려상(손해보험협회장상)은 '초롱초롱동요학교', '드림앤커리지', '그린나래' △인기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상)은 '창작뮤지컬단', '배우로운세상', '강릉유천초'가 수상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 뮤지컬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무대”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교통안전 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도 ‘운전 능력 평가 강화’ 원한다

- 인식 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 절반 이상 “운전 능력 평가 강화가 1순위”
- 공단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기술·인프라 통합적 접근 필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비고령 운전자 모두 적성검사 시 안전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운전 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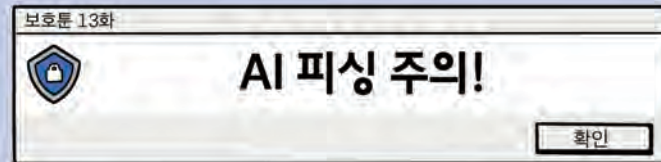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차량 보조장치 사용이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 모두 ‘운전 적성검사 시 운전 적합성 평가 강화’를 꼽았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응답 비율은 64.0%로, 비고령 운전자(48.0%)보다 더 높았다.

이 외에 고령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확대’(15.5%), ‘첨단 운전 지원 장치 장착 의무화’(11.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고령 운전자는 ‘첨단 운전 지원 장치 장착 의무화’(21.0%),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18.5%) 순으로 응답했다.

차량 보조장치 중 비상 자동 제동장치에 대해서는 비고령 운전자의 67.5%, 고령 운전자의 77.0%가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가 고령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비고령 운전자 76.0%, 고령 운전자 86.5%가 ‘그렇다’고 응답해, 해당 장치가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내용 중 인식 조사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령 운전자(65세 이상) 200명, 비고령 운전자(65세 미만)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했다. 고령 운전자는 교육받은 면접원이 직접 대면조사를 수행했고, 비고령 운전자는 국내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할당 표집으로 조사했으며, 고령자는 초기 고령(65~74세)과 후기 고령(75세 이상)으로 각각 50%씩 구성했다.

보호툰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보호처가 신호등 독자 여러분께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코보’와 함께 나섰다.

글·그림.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보호처 권상민 대리



* 딥페이크: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 보이스 클로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를 학습시켜, 그 목소리로 글을 읽어주는 기술

이름: 코보
의미: ‘코로드 정보보호’의 약자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을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마스코트



2025년 연중 캠페인 진행 “타면 착! 안전도 착!” 경찰청, 안전띠 다시 한번 조인다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머리 상해 정도 비교(일반 승용차가 48km/h로 정면충돌시)

구분	머리 상해치(HIC) ¹⁾	의식불명 위험도 ²⁾
안전띠 착용	723	6%
안전띠 미착용	1,950	90%

(출처: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2013)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연이어 측대 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동승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에서는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와 같은 안전띠 착용 강조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를 짚는 6개 중점 홍보 주제를 선정,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 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며, 홍보 가로막도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1) 머리 상해치(HIC, Head Injury Criterion), 국내 안전기준 1,000 이하

2) 충돌 이후 탑승자가 의식을 잃을 확률



‘호동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생활을 약속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마스코트 호동이는 교통안전 메신저입니다.
호동이를 예쁘게 색칠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을 약속해 봅시다.

그림을 정성껏 색칠한 후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2025년 8월 13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 호동이 인형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 보내주시는 메일은 단체 계정으로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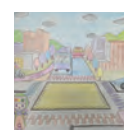
지난 호 당첨자



김*식(2654)



최*진(0628)



박*전(4939)



김*정(6763)



이*주(5528)

※ 상품 지급 시 색상은 임의 발송됩니다.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신호등」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내 차 사용법

자동차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현명할지 망설였는데 구입 방법과 절차, 자신의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펍 유익했다고 봅니다.

강*희(0466)

미래 도로 설명서

밤길 안전을 책임지는 자체 발광 도로 기사입니다. 한밤중 운전을 하다 보면, 유독 어두운 도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로등만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도로가 빛을 낸다면 어떨까요. 전기나 가로등 없이도 조용히 어둠을 밀어내는 도로가 있다면 안전운행과 운전시 피로감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송*영(8272)

시선 차이

도로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서로 자신의 입장과 취지만 강하게 주장해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양보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 줍니다.

박*애(8139)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 교통관리체계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해 신호를 조정하거나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통 흐름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희(8139)

KOROAD, CO-ROAD

다양한 첨단 기술의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나날이 발전해 가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누리며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희망해 봅니다.

이*희(2635)

「신호등」 모의고사 _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혀 주세요.

정답은 2025년 신호등 7+8월호에 숨어 있습니다.

Q1. 이번 호 「신호등」의 특집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배려를 선물하는 마음으로

② 안심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③ 행복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④ 영광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Q2. 이번 호 ‘약속해요 안전운전’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 ① 운전 중 전방 주시

② 보행자 보호

③ 음주운전 금지

④ 교통약자와의 동행

Q3. 이번 호 ‘호동이 안전툰’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 ① 폭염 주의보

② 천둥 주의보

③ 장마철 주의보

④ 안전띠 주의보

참여 방법 2025년 8월 14일까지 ‘정답/이름/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hongbo@koroad.or.kr

과월호 당첨자 안내

5+6월호 신호등 모의고사

정답 Q1.④ Q2.② Q3.④

이*훈(3867), 김*대(3882), 김*미(5853), 김*진(3456), 박*숙(7154)

5+6월호 교통안전 퀴즈

정답 Q1.④ Q2 ③,④ Q3.④

오*수(8132), 이*순(7526), 류*완(0822), 이*철(0107), 엄*현(0121)

5+6월호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윤(4535)	유*의(0937)	최*진(8679)	고*일(0100)	박*화(1273)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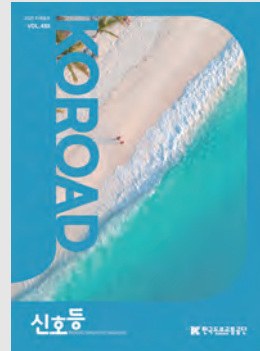
당첨자 및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시길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2-2090-1105 (신호등 편집실)

신호등과 함께 만드는 도로교통 안전 생활

「신호등」 정기구독 안내

- 「신호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소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교통안전 종합정보지입니다.
- 「신호등」은 매 홀수달 초순에 발행됩니다.
- 구독 신청 및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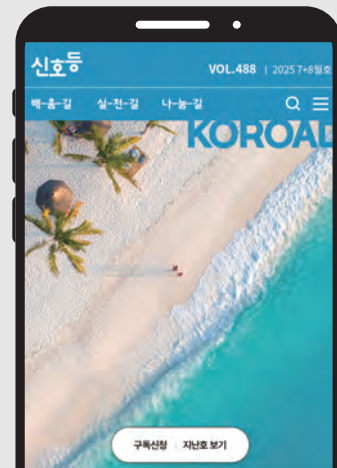


정기구독 신청·해지·주소 변경 방법

- ① 독자엽서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신호등」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호등」 안내

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신호등」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만나 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신호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신호등」을 만나는 방법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밀리의 서재에서 「신호등」을 검색하세요.
‘무료’로 이북을 구매하시면, 전자책으로 신호등의 모든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북 보는 방법



2025년 7월 8일
tbn 충남교통방송이 개국합니다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2025 7+8월호

VOL. 488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9층

편집실

0	7	2	3	7
---	---	---	---	---



「신호등」 독자 엽서



온라인에서도 독자 엽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신호등」이 교통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와 그 이유는?

3. 「신호등」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과 그 밖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4. 설정한 차량 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능(크루즈 컨트롤)을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① 자주 사용한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④ 사용해 본 적 없다

5. 위 기능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중복 응답 가능)

①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가 줄어든다 ② 연비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③ 속도 단속 걱정을 덜 수 있다
④ 갑작스러운 상황에 즉각 대응이 어렵다 ⑤ 예상치 못한 가속·감속이 불안하다 ⑥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신호등」신규 정기구독 및 주소 변경 신청

신규 구독 신청

이름_____

주소_____

구독 주소 변경

이름_____

기존 주소_____

변경 주소_____

봉투에 표기된 독자 번호_____

뉴스레터 신청

_____@_____

독자 퀴즈 답안지

교통안전 퀴즈

Q1 ① ☐ ② ☐ ③ ☐ ④ ☐

Q2 ① ☐ ② ☐ ③ ☐ ④ ☐

Q3 ① ☐ ② ☐ ③ ☐ ④ ☐

이벤트 당첨 시 상품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010-□□□□-□□□□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목적: 「신호등」 발송, 이벤트 당첨 상품 발송, 전자우편 뉴스레터 발송에 활용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이용 기간: 3년 (이용자: 경성문화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호등」 구독 및 이벤트 당첨 상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기 구독 동의 ☐ 뉴스레터 수신 동의 ☐ 이벤트 참여 동의

독자 엽서 작성 및 이벤트 참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에서도 가능합니다.